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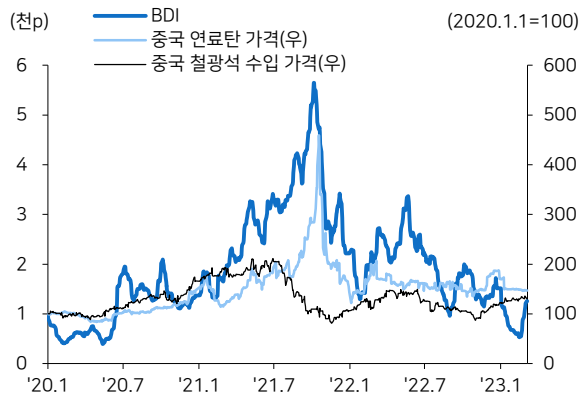
2023. 3. 10 (금)

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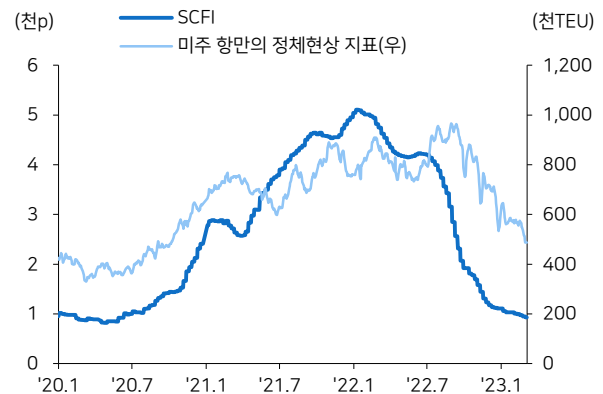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

1,379.0p(+52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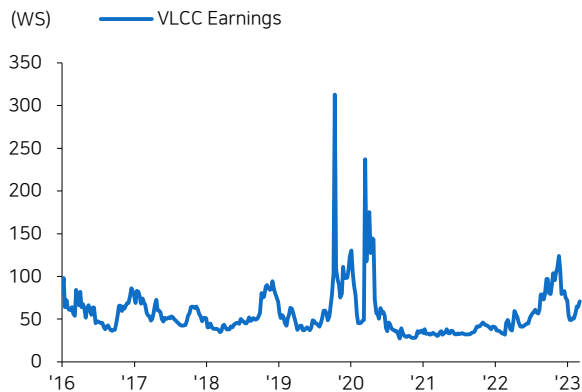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931.1p(-15.6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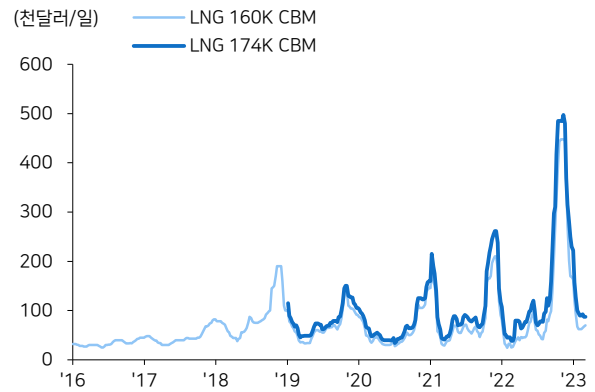


VLCC Spot R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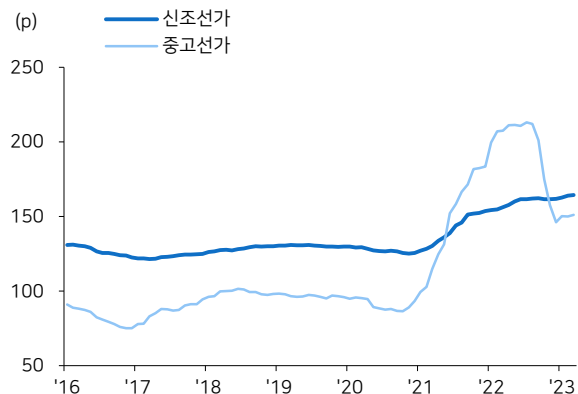
70.7p(+6.5p WoW)



LNG Spot 운임

70.5천달러(+2.5천달러 WoW)
87.5천달러(+0.0천달러 WoW)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4.3p(+0.4p WoW)
151.1p(+1.2p WoW)

중국 내수 후판가격

696.0달러(-2.0달러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Russia's Yamal LNG upped exports in 2022 with 90% of cargoes shipped to Europe

High North Logistics에 따르면 Yamal LNG 프로젝트 생산량 90%는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보도됨. 281척의 수송 건 중 251척이 유럽으로 향했다고 알려짐. 2021년 263척 중 219척이 향한 과거보다 높은 수준임. 프랑스 · 벨기에 · 스페인이 주요 수입국으로 알려짐. 아시아는 2022년 33척, 2021년 44척 수준으로 언급됨. 아시아 수입국은 중국 · 대만이 있는데, 인도네시아가 신규 수입국으로 등장했다고 알려짐. Sabetta 항구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북해항로를 이용해 수송되며 항로길이가 길어졌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

Container shipping 'price war' spreads to Asia-Europe trades

아시아→유럽 컨테이너 운임이 40% 하락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됨. FBX에 따르면 아시아→북유럽 노선은 3월 8일 기준 1,500FEU(1FEU=2TEU) 수준임. 1월 3,420달러/FEU, 2월 2,608달러/FEU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알려짐.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, 일부 선사들은 과잉선복을 줄이지 않아 가격 전쟁 국면에 이르렀다고 알려짐. 태평양횡단 노선 운임은 이미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언급됨. (Tradewinds)

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, 자사주 또 매입

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이 1월에 이어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보도됨. 평균 취득 단가는 15만 9,700원이며 취득 총액은 1억 5,790만원으로 알려짐. 이부사장은 지난 1월에도 1억 6,200만원어치 1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고 알려짐. (딜사이트)

TotalEnergies plots drilling at potentially giant prospect offshore Papua New Guinea after major Covid delays

TotalEnergies가 4년간 연기된 파푸아뉴기니 유전을 2024년 시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. 심해 Mailu-1 wildcat에는 약 500백만 배럴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됨. (Upstream)

아시아나항공, 중국 노선 운항횟수 9배 늘린다

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17개 중국 노선을 주 89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보도됨.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 9개 중국 노선을 주 10회 운항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9배 가량 확대된다고 알려짐. 하계 운항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베이징,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노선들을 주 14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임. 기존 5% 수준이었던 중국 노선 운항 회복률을 50%까지 끌어올려 중국 리오프닝에 대응해나갈 계획임. (조선Biz)

미국 항공사, 조종사 모시기 경쟁...임금 40% 인상 걸었다

미국 항공사들이 조종사 부족 현상에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내걸었다고 보도됨. 델타항공은 사내 조종사 1.5만명을 대표하는 민간항공 조종사협회(ALPA)와 협상해 앞으로 4년간 급여를 34% 인상하기로 했다고 알려짐. 아메리칸항공은 평균 급여 21% 인상에 이어 4년 후에는 총 급여를 40%까지 높인다고 언급됨. 유나이티드, 사우스웨스트 등 미국 항공사는 2023년 조종사 8,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으로 언급됨. 일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했다고 언급됨. (아시아경제)